

노인가정의 가사노동관리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영희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의 의의
 - 1. 노인가정의 형성과 특성
 - 2.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의 의의
- III.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접근
 - 1. 가정모형
 - 2. 가사노동의 성격
 - 3. 노인가정의 주부
- IV. 노인가정의 가사노동 실태 및 가사지원
 - 1. 가정생산영역
 - 2. 가사노동의 사회화
 - 3. 가사지원
- V. 맺는말
-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 될수록 노인은 가족에 의해서 부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감소된다. 과거 자녀들에 의해서 부양받아 왔던 노인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점차 노인들만의 단독가구를 형성하게 되면서 생활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단독가구(본 연구에서는 노인단독가구와 노인가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임)의 급증으로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노인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립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가정의 자립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립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에 대

해 외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연구를 통해 노인가정의 자립 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외적 지원의 적정성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여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가정의 가사노동연구에 적용시켜온 기존의 연구개념이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에도 유용한지를 진단하여 보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사노동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가사노동연구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의 의의

1. 노인가정의 형성과 특성

현대 의학의 발달,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및 사회 경제적 제 요인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인구구조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 지구적 규모의 인구고령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를 「세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정한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 고령화 사회의 개념정의를 언급한다면, 「고령 사회」(aged society)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한 어떤 단계에 와서 그 비율이

<표 1> 1960-2020까지의 장래인구 추이

(단위 : 세, 천명, %)

연 도	평균수명			총인구	0-14세	15-64세	65+	80+
	전체	남자	여자					
1960	52.4	51.1	53.7	25,012	42.3	57.0	2.9	0.2
1970	63.2	59.8	66.7	32,241	42.5	54.4	3.1	0.3
1980	65.8	62.7	69.1	38,124	34.0	62.2	3.8	0.5
1990	71.6	67.7	75.7	42,869	25.6	69.2	5.1	0.7
1995	73.5	69.6	77.4	45,093	23.4	70.7	5.9	0.8
2000	74.9	71.0	78.6	47,275	21.6	71.2	7.1	1.0
2010	-	-	-	50,618	19.9	70.1	9.9	1.6
2020	78.1	74.5	81.7	52,358	17.2	69.6	13.2	2.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거의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사회를 말하며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이고,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전체인구에 대비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의 사회로 고령자 인구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흔히 고령화 사회라고 할 때 엄밀한 비율에 구애되기 보다는 고령자 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사회라고 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박광준 외,1999). 이런 점에서 본다면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와 함께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로 고령화 사회의 사회 정책적 관심의 대상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이다. <표2>와 <표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1975년 4.23%였던 것이 1985년에는 6.91%로 그리고 1995년에는 12.73%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이제는 노인단독가구 형태는 일반적인 노년기의 가족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그 증가율 또한 전체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충선·남정립,1996). 그런데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나타난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30.6%가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중 16.4%가 부부가구이며 13.7%가 독거노인가구이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독거가구가 10.7%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노인단독세대비율의 증가

(단위 : 가구, (%))

	가구수				
	1975	1980	1985	1990	1995
전 체	6,647,778	7,969,201	9,571,361	11,354,540	12,961,138
1세대 가구	6.72	8.26	9.57	10.74	12.98
노인단독가구	4.23	4.80	6.91	9.00	12.7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연도

<표 3> 65세 이상 노인 거주 가구별 분포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계	65-69	70-79	80+	계	65-69	70-79	80+	계	65-69	70-79	80+
노인가구거주비율	30.6	30.5	33.8	20.5	26.9	16.0	36.0	31.9	32.8	40.7	32.5	16.2
1인가구 거주비율	13.7	13.3	14.9	10.7	5.0	4.3	5.4	5.8	19.0	19.7	20.7	12.5
부부가구1 거주비율	16.4	16.7	18.5	8.6	21.7	11.4	30.3	25.7	13.2	20.5	11.2	2.3
기 타2	0.5	0.5	0.4	1.2	0.3	0.3	0.2	0.5	0.7	0.6	0.5	1.4
비노인가구3거주비율	69.4	69.5	66.2	79.5	73.1	84.0	64.0	68.1	67.2	59.3	67.5	83.8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

주 : 1. 부부중 두 사람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2. 부부관계 이외의 65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가구

3. 노인가구 형태가 아닌 기타 다른 형태의 일반가구 노인이 사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자녀세대의 취업으로 인한 부모와의 분거, 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등의 요인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최근 2,30년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들이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자녀세대만의 가구를 형성하면서 노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노인단독가구로 남게 되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자녀 특히 장남이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여 불효자식이라고 더 이상 비난을 받는 분위기가 아니며(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효(孝)가 일방적인 의무라기 보다는 상호간의 이해와 애정의 교환행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한남제, 1986). 노인의 단독가구화 경향은 노인들의 의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세대층에서도 자녀세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가구의 경우는 가사고용인이나 간병인 등의 고용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충선·김정립,1996). 이처럼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로 노인가정도 일반가정과 같이 자립적인 생활단위로 기능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겼다.

그러나 노인가정은 일반가정과 달리 생애주기단계를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충실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자녀와 동거하는 일반노인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노인단독가구의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거나¹⁾), 노인이 병이 나도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없거나, 심지어는 노인이 사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체적인 연구의 경향은 사회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노인문제의 개선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노인의 문제를 주로 노인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정책의 수혜대상이

1) 서울시의 일반노인의 식사율을 보면 아침(94.7%) 점심(94.9%) 저녁(97.8%)로 나타난데 비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는 아침(85.8%) 점심(89.6%) 저녁(92.5%)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울시,1997).

지극히 제한되어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의 의의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선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인가정의 자립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가정을 발견하여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사 서비스의 내용을 탐색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가정의 자립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중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가정봉사원사업과 가정도우미제도는 가사노동에 대한 외적지원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생활보호노인의 가정에 파견하여 가사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는 국고와 시비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가정도우미제도는 유급의 가정 도우미가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 노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보조, 목욕 및 대소변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료 자원봉사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그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결식노인에게 식사제공을 하는 경로식당의 운영, 식사배달서비스 등이 있다(서울시, 1997).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여건상 사회적 서비스 제공은 필요로 하는 수요에 턱도 없이 부족하여 아직은 극히 제한된 노인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가정이 자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아직은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적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노인가정의 자체적인 자립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가사노동의 효율화를 통한 자립의 증대는 사회적 지원의 시기를 유보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사노동연구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들이 노년기에 진입하기 이전에 노년기에 대한 준비교육을 받는다면 노인가정의 자립성을 보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자원관리분야에서의 가사노동연구는 노인의 문제를 가정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가족원 한 사람의 자립의 기여는 다른 가족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망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노인의 자원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연구는 노인가정의 자립을 위한 가사노동수행 방안의 모색이나 노년기 이전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노년기 준비를 위한 가사노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Ⅲ.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접근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연구에서 '가정'은 하나의 생활단위로서 가족의 자립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그 가정에 '주부가 있음' 또한 당연시한다. 어쩌면 가족의 일상생활을 유지케 하는 가사노동 자체로서 보다는 '주부'의 가사노동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가사노동과 주부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개념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은 다소 생소한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제도하에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노인세대가 주부가 되는 일은 없었다. 어느 일정 시기에 이르면 며느리가 주부가 되고 노인은 자녀세대의 부양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에 관심을 두어온 이 분야의 연구 또한 노인의 가사노동을 연구 주제로 삼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인단독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는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필요성은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선행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인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의 가사노동에 적용시켜온 기존의 방식으로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해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가정모형의 적합성 및 가사노동의 성격, 노인가정의 주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모형

가정은 기본적인 생활의 자립단위이다. 그런데 가정의 자립형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과정과 함께 바뀌어 왔다. 교환경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가정은 가족들이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자급자족하여 자립해 왔다. 즉 이 시기에는 순수한 가정생산에 의해서만 가족생활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점점 시장이 발달하면서 가족들이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 과정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극단에서는 가족의 모든 욕구충족을 위한 일체의

기능과 노동을 사회에 이전시키고 자원의 배분만을 가정이 하는 형태가 가능하게 된다. Hack-Unterkircher(문숙재,1990 재인용)는 이렇게 기술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정형태의 변화를 바탕으로 가정의 유형을 자급자족가정, 용역가정(교환경제가정), 시장의존가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문숙재(1990)는 그중 현대사회에서의 가정은 용역가정(교환경제가정)일 수밖에 없고 그외의 두 가정형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는 현대 가정의 형태를 용역가정의 형태를 전제로 하고, 가정생산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나 사회단체의 가정생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노인단독가구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가사보조나 식사제공/배달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은 그 수혜대상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전적으로 공적지원(완전재가서비스와 같은)에 의해 노인생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노인관련 사업(실버산업)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일환으로 유료 양로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적지않은 노인들이 이러한 주거형태를 선택하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자녀들의 부양의식의 변화,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미래에는 이러한 주거형태, 즉 완전시장의존가정 형태가 더욱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유료 양로시설의 수는 5 개소이며 입소노인은 250명 정도로 나타났다(신건희,1997 재인용).

이상에서 볼 때 노인단독가구가 증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유형에 의해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노인가정은 일반가정과 같이 가정생산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의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자녀나 이웃의 가사지원, 공적인 가사지원을 받아가며 생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 양로시설처럼 완전시장의존형태로 생활하거나 혹은 완전 공적보호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완전시장의존형태나 완전공적보호상태의 경우 기존의 가사노동 개념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노인가정의 생활유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정생산, 가사노동의 사회화, 비공식적·공식적 외부지원의 영역간 역동성을 보아야 할 것이며, 가정모형도 단순히 용역가정으로 전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가사노동의 성격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을 노동력 재생산노동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가사노동이 노동력 재생산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가장(남성 노동력)의 사회노동력을 충전시키고 또한 미래의 사회노동력인 자녀들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 의식주 등의 관리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 생산과정의 순환을 위한 가정의 보이지 않는 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사노동은 여성, 사회노동은 남성이라는 성별분업의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노인가정의 경우는 어떠한가? 초로기의 아직 은퇴하지 않고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가정은 사회의 생산활동에서 은퇴하여 노인부부가 혹은 노인 혼자 가정에서의 삶을 주로 하는 경우이며, 또한 더 키우고 교육을 시켜야 할 자녀도 없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일 뿐이다). 이제는 사회가 더 이상 노인가정에 대해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을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력 재생산 과정은 노인가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그리고 혼자사는 노인의 경우 성별분업의 의미를 내포한 노동력 재생산의 개념은 별로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은 이처럼 대사회적 기능을 갖기보다는 현재의 가족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로부터 과거의 노동력 재생산노동에 대한 대가를 돌려 받아야 하는 시기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가가 자녀세대로부터 이루어졌으나 사회구조적 및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의 변화와 함께 이제는 그 역할을 사회도 공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가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신건희,1997).

3. 노인가정의 주부

1)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의 주담당자는 주부이다. 그리고 여성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가사노동의 연구대상은 여성주부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노인가정의 경우 <표3>에서 보듯이 남자가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적지 않으며, 부부가구라고 할지라도 여자

노인의 건강상의 조건 때문에 노인가정에서 남자노인의 가사노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자를 여자로만 제한하는 경우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실태를 파악하는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노인가정에 있어서 주부는 여성으로만 제한될 수 없다.

2) 가사노동자의 인적특성

가사노동수행에서 ‘합리성’,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주부의 가사노동의 수행과 관련된 인적요소(자원)는 이러한 가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 요소는 신체적, 인지적, 시간적, 정의적 네 요소로 구성되는데(문숙재,1990), 이 요소의 수준은 가사노동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에서는 노인가족의 각 요소의 수준을 살펴보면서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수준을 일반가정의 가사노동수준과 같이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① 신체적 요소

가사노동은 구체적인 가사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주부의 신체적인 건강은 필수적 요건이다.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들어올릴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안전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게 운동신경계가 발달해야 하며, 맛²⁾과 냄새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계가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노화과정을 거치면서 신장이 줄어들고, 신체적 건강수준은 서서히 떨어져 심한 경우 기본적인 신체동작도 하지 못하기에 이르며, 이러한 진행은 개인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이 된다. 이를테면 식품의 구입이나 조리과정이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므로 같은 재료의 같은 음식을 며칠씩 계속 먹게 될 때가 많다. 이것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비록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은 과거보다 크게 연장되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병장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1993)

② 인지적 요소

인지적인 요소도 가사노동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의 요구파악, 다양한 정보수

2) 노인이 되면 미각, 특히 짠맛과 단맛이 둔화되어 음식의 간을 잘못맞춰 음식을 짜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노인의 경우 염분사용을 제한해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1993).

집, 계획, 의사결정, 수행의 적시성 판단 등은 가사노동의 질을 좌우한다. 가사노동은 노동자체가 축적될 수 없는, 그래서 반복적인 것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경험이 축적되어 주부에게는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이런 노하우를 활용하면 시간소비를 줄이고 신체적 피로도 없이 노동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경험이 많다는 것, 즉 주부의 연령이 많다는 것은 훌륭한 인지적 측면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그 가정의 전통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여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하나의 자산이었다. 이런 점에서 노인가정은 가사노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 정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원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15-25%가 정신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1993). 이런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적 지식들이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남자노인이 주가사노동가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가족제도에 서 가사노동과 남자노인은 전혀 무관한 존재였기 때문에 특히 남자 독거노인의 경우 가사노동에 많은 문제점을 보일 것이다.

③ 시간적 요소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시간은 주부들에게 많은 갈등적 요소가 되어 왔다.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주부들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족간의 가사분담을 꾀한다든가 가정기기를 이용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가사노동자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간적 요소가 가사 노동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가 어느 분야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가정의 경우는 일반가정의 경우와는 다르다. 재정적인 측면이나 신체적 건강 조건과는 달리 생활구조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노인가정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시간과의 갈등의 주요인이 되는 직업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으며 또한 가사노동의 내용이 일반가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자원의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가사노동에서 시간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가사노동시간이 필요 이하로 적을 때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의 충실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세끼 식사준

비를 잘하고 있는지, 세탁과 같은 위생적인 의생활 관리를 하는지 등 여기에 소요된 가사노동시간은 노인가정의 생활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시간의 적시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④ 정의적 요소

가사노동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 혹은 태도, 만족감 등은 가사노동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가사노동의 동기화나 신체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를테면 남편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맛있는 한끼의 식사준비, 쾌적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남편의 자신의 직장출근, 자녀들의 등교시간에 맞추기 위한 주부의 효율적인 가사시간관리 등 일반가정의 탄력있는 하루를 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사노동의 동기화 측면에서 노인가정은 일반가정과 다르다. 이러한 동기화가 가사노동태도에 영향을 미쳐 노인들의 가사노동태도가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누구를 위해 가사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사노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줄 누구도 없고,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결식을 할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가사노동태도는 신체적 건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가사노동은 오로지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인가정은 가사노동의 네 인적요소 중 시간요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요소에 있어서는 일반가정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가정의 가사노동수준은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수준의 준거가 될 수 없다. 반면 노인가정은 시간요소에 있어서 거의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 오히려 관리의 의미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사노동연구에서 공유해온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 가정의 자립성을 전제로 한 가정유형모델, 노인가정의 주부 등이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가사노동연구의 개념도구들이 노인가정과 일반가정에서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사노동의 개념에서 은퇴하지 않은 초기노인의 가정의 경우는 예외이나 대부분의 노인가정은 은퇴한 노년기의 가족구조상 재생산 노동의 의미가 없어지고, 관계적 노동은 가족구조에 따라 부부노인의 경우는 중요한 개념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부분

이다. 또한 가정의 자립성을 제시해주는 가정모형에서 노인가정은 가정과 시장과의 관계를 기초로 구성된 가정모형으로는 모든 노인가정의 생활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즉 많은 노인가정은 일반가정에서 나타나는 가정내의 가정생산과 시장에서의 사회화 측면과 함께 사회적 보호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며,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많은 수의 노인가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의 가사노동의 수행요건을 통해서 볼 때도 일반가정과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예상된다. 즉 건강한 노인인지 아닌지, 거주형태가 부부노인형태인지 독거노인형태인지, 또 독거도 여자독거노인인지 남자독거노인인지 등 노인가정의 생활은 일반가정과서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이 이미 다른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가사노동의 수준 또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일반가정과 단순히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노인가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겠다.

일반가정과 구별되는 노인가정의 특징은 사회적 지원(비공식적, 공식적 지원)의 요구 정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노인가정의 공적지원의 필요성의 정도는 그 가정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상태, 연령,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 등을 표현해 준다고 본다. 여건이 좋아서 모든 가족생활을 일반가정처럼 가족의 자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생활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되 다소 미흡한 가정의 경우는 보완적인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경우에 1차 가족집단 혹은 이웃의 지원, 그리고 그와 함께 자원봉사자와 같은 비공식적 보호는 중요한 보호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전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형태, 다시 말하면 사회적 보호 특히 공식적 보호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가정형태를 간단히 표현하면 자립노인가정, 반자립노인가정, 보호노인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가정유형별 가사노동연구의 과제도 달라질 것이다.

자립노인가정은 그 이전의 일반가정과 가장 유사점을 많이 갖는 형태로, 대개는 초기 노년기 가족형태가 될 것이다. 가족이 부부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중 한 사람이 직업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며, 비교적 가족 건강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이며,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가정에서는 일반가정의 가사노동의 내용과 함께 노인으로만 가족이 구성되므로 가사노동연구의 과제중 하나는 가사분담이 될

것이다. 남자노인의 가사노동 분담은 생활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자립노인가정은 대개 중기 노년기의 가족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노년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서 가족의 건강이 다소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도움, 가족적 지원과 함께 특히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가장 손쉬운 경우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 의료비 지출 등과 함께 몫돈이 지출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가족집단으로부터 종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된다. 이런 유형의 노인가정에서는 가족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가사노동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체계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의 가사노동주기(매일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1주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지, 1달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아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호노인가정의 경우는 가족원에 의한 가사노동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순수한 의미의 가사노동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개는 극노인 가정이거나 독거노인가정이 여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정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나 지식,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연구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제공된 지식이나 정보도 활용할 수 없을 수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조직이나 단체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가정일 것이다.

가사노동은 가족들의 생활유지와 나아가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립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에서는 가정생산 부분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부분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반자립노인가정의 경우에는 자립적인 영역과 함께 사회적 보호 수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호노인가정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사노동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위의 두 경우와는 다르다. 연구자 혹은 연구목적에 따라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IV. 노인가정의 가사노동 실태 및 가사지원

노인단독가구가 크게 증가하기 전까지는 노인가정의 가사노동문제는 가사노동연구에서 그다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지 못하였다. 대체로 가정에서의 주가사노동자는 20-50대 주부들이며, 노인들은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의 수행은 노인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제한된 연구에 기초하여 가정생산 영역과 관련된 노인가정의 가사노동태도/가사노동시간/가사분담/가정기기 활용/가사노동관련 주거조절,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사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정생산 영역

1) 가사노동태도

우선 가사노동태도를 보면 30대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좋아하는 반면 주부가 50대가 되면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김외숙,1981) 노인이 되면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한은진·채옥희,1995). 특히 75세 이상인 여자노인(노인단독가구)들은 많은 수가 마지못해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조명희 외 1997). 그리고 그 태도는 가사노동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식사준비는 비교적 좋아하는 영역인데 반해 설거지, 청소나 집안정리, 세탁 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진·채옥희,1995; 조명희 외,1997).

2)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노인가정은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도 없고 가구원 수도 적으며, 가족생활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가정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노인부부중 신체적으로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많은 경우 4.5-5.3 시간(이정수,1990; 한은진·채옥희,1995)로 나타났으며, 적은 경우 3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사노동시간은 연령이나 건강상태와 직접 관련됨을 볼 수 있다(조명희 외,1997).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75세 이상 집단과 그 아래 집단간에 현격한 (의미있는)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전자 노인집단의 경우는 2.7시간 정도인데 반해 후자 노인집단은 4시간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또 건강상태가 나쁜편인 노인집단은 가사노동시간이 3.2 시간, 건강이 좋은 노인집단은 4.1시간으로 나타났다.

奥村美代子は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70대 전반과 후반 사이에 손동작, 상반신 동작의 가사노동시간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평균일의 가사노동시간은 60대에는 131,7분, 70대 전반의 경우는 120분, 8,90대는 68.2분으로(채옥

회,1991 재인용) 연령이 증가하면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수행은 신체적인 건강이 필수적 요건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조사한 보고서(김정희, 1996)에 의하면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이 69.1%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만성질환 정도를 조사한 보고서(서미경,1995)에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이 72.2%나 되며, 특히 여자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정도는 더욱 높아 80.6%로 나타났으며, 여자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관절통을 앓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도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자노인의 건강상태는 노인가정의 남자노인의 가사분담(혹은 보조라도), 가정기기의 활용, 주거조절, 가사보조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3) 가사분담

노인단독가구중 부부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이 분담정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주로 주생활 영역(청소나 집안정리)이며, 식생활 영역(식사준비와 설거지)과 의생활 영역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 두 영역중 도움을 주는 정도가 식생활 영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생활 영역의 방쓸기, 방담기, 마당쓸기, 집안정리정돈, 쓰레기버리기 중에서 방쓸기를 많이 하는 편이며, 식생활 영역에서는 다듬기, 조리하기, 상차리기, 설거지 중에서 상차리기를 많이 도와주는 편이며, 의생활 영역에서는 세탁기돌리기, 손빨래하기, 빨래널기, 빨래건기 중에서 세탁기돌리기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외,1997). 부부노인의 경우 여자노인의 신체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노인의 낮은 가사분담 정도는 가족내에서의 가부장적 사고의 반영이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가사분담에 대한 교육에 접할 기회도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가정기기 활용

가정기기는 가사노동을 단순화시키고 가사노동을 절약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노인가정에서 가정기기를 잘 활용하면 신체적으로 불편한 몸을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가정기기의 보유정도를 살펴보면 냉장고(93.1%), 세탁기(70.1%), 가스레인지(93.1%), 등 그 보유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전자레نج이는 낮게 나타났다(28.0%). 그런데 한 조사결과(권오정,1997)에 의하면 노인들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 전자레نج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기기들은 본인들이 직접구입을 하는 경우

(대략 40-60% 정도)도 있지만 자녀들이 사서 주거나(30% 내외) 쓰던 것을 받아쓰는 경우(10여%)도 있어 보유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조명희 외,1997). 따라서 이렇게 거의 생활필수품화되는 내구재의 보유는 신체적인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노인가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5) 가사노동관련 주거조절

노인이 되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그리고 남의 도움없이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중,장년일 때는 미처 불편하게 느끼지 못했던 주택의 구조나 규모, 시설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노인가정에서는 신체적인 조건 등의 변화로 더 이상 편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실제 노인가정의 주거조절 실태를 보면 <표4>와 같다.

욕실/부엌의 온수시설이나 물건 나르는 웨건의 사용정도는 높은 편이나 다른 내용들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 선반 높이의 조절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노인가정의 가사노동관련 주거조절 실태*

(단위 : %)

	현재사용		미래필요성인식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선반을 손이 미치는 높이에 설치	19.8	53.5	67.3	30.7
욕실, 부엌, 거실, 침실 등에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	39.6	58.4	76.2	21.8
냉.온수가 하나로 된 레버식 수도꼭지	39.6	58.4	68.3	27.7
냉.온수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수도꼭지	62.4	33.7	60.4	32.7
부엌 작업대가 높아서 작업대 밑에 발디딤판 사용	6.9	89.1	23.8	72.3
부엌 작업대(싱크대, 조리대, 수납장)의 높이 조절	11.9	85.1	44.6	52.5
욕실/부엌 온수시설	93.1	5.9	95.0	2.9
부엌이나 현관에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좌석을 마련	26.7	72.3	52.5	44.6
부엌 작업대와 대조되는 색의 바닥깔개를 사용	36.6	62.4	52.5	46.5
물건 나르기 편하게 바퀴달린 웨건 사용	86.1	12.9	91.1	4.0

* 권오정(1997)의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의 조사결과를 연구자가 가사노동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다시 작성한 것임.

2. 가사노동의 사회화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채옥희(1991)는 노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실태를 가사노동의 상품화, 가사노동의 집단화, 가사노동의 용역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채옥희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기계화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산의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내용별 순서를 보면 가사노동의 집단화, 상품화, 용역화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집단별로 볼 때 노년초기의 경우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결과 집단화나 상품화에 있어서는 현재의 수준이나 기대수준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용역화의 경우는 현재의 수준은 낮으나 기대하는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대수준은 높지만 실제 수준이 낮은 것은 노인들이 가사노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3. 가사지원

가사지원은 가족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내에서 가사노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때 가족 외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는 아직도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외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사보조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설령 그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도 대개는 1차 가족집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자녀세대, 특히 며느리와 딸의 도움이 주된 지원자임을 알 수 있다(조명희 외, 1997). 그러나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과는 달리 가사적 지원은 직접 왕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녀의 거주근접성이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즉 보다 가까이 사는 자녀세대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농촌노인은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고 연락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도시노인의 경우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30분 내외에 자녀가 거주하는 정도가 오히려 높아 접촉빈도도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요즘 가족의 친밀도 구조가 바뀌면서 특히 딸이 가사보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적 지원

은 다른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보다 낮게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한경혜,1996; 조명희 외,1997).

사회적 지원은 노인복지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가정봉사원과 가정보조원의 가사보조, 식사배달서비스, 경로식당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사보조와 식사제공/배달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다(김경혜,1995).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노인가정이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서비스중 가사보조에 대한 요구도는 사회복지사들이 느끼는 정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가정봉사원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등을 당면문제해결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김소희·김미혜,1993). 이것은 아마 가사는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는 노인들의 인식에서 나오는 차이일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에서 노인가정의 생활유지 방식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자립적이고, 어떤 부분을 사회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부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연구대상 역시 일반가정과 같이 여성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남자독거노인의 가사노동실태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구체적인 가사노동수행 실태에 있어서는 먼저 가사노동태도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고, 가사노동시간 또한 2-5시간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나 단지 그 실태만을 알 수 있을 뿐, 아직은 연구가 미흡하여 판단의 준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가사분담, 가정기기 활용,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사지원에 대한 실태는 단지 한 두편의 연구결과만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고 본다.

V. 맺는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노인가정은 가족생활주기상 일반가정과 연속선상에 있지만 실제 가족의 욕구,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욕구충족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며, 또한 노인가정 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인가정의 가사노동 연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일반 가정의 가사노동연구에 적용되는 가정모형이 노인가정의 연구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정모형을 용역가정에 사회적 지원이 포함된 형태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연구는 가계생산부분, 가사노동의 사회화 부분, 외부의 가사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노인가정의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노인가정의 가사노동의 자립도를 측정하여 자립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회적 자원축적이 노인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가정의 자립도를 높이거나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물론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을 퇴보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과 관련되는 시설, 설비의 개선(싱크대의 높이나 선반의 높이 조정,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으로의 개조 등), 가사노동과 관련된 노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노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가사용품(큰 글씨로 쓰여진 가사용품, 안전용품, 음식의 염분 측정기, 시간경과를 알려주는 조리기 등)의 제작에 대한 정보 제공, 편리한 가정기기의 활용법에 관한 정보 제공, 가사작업의 단순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적인 가사지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외적지원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노인가정의 유형에 따라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외적지원의 내용을 파악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확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가정이 사회체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적자원을 연결하고 그 자원이 노인가정에 접근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원의 유용성과 이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도 공식적인 외적지원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잔여(residual)부분을 공공가정과 같은 경영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가정경영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제고하여야 하며,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미래의 노인가정의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예를들면 가사분담의 공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가정의 자립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노동연구의 연구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가정의 구성원과 달리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나 인지적인 면의 취약성 때문에 기존의 연구방법들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유진·한경혜(1997), 비동거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한국노년학회, 271-288.

- 권오정(1997), 노인 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한국노년학회, 1-18.
- 김경혜(1995), 서울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1.
- 김소희·김미혜(1993),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노인의 인지비교연구, 한국노년학 13-2, 한국노년학회, 120-134.
- 김의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태도1, 대한가정학회지 6, 133-141.
- 김정희(1996), 한국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인구요인, 한국노년학 16-2, 한국노년학회지.
- 문숙재(1990),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 박광준 외(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 박충선·남정림(1996), 노인단독가구의 생존전략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2, 한국노년학회, 81-101.
- 서미경(1995), 한국노인의 만성질환 상태 및 보건의료대책, 한국노년학 15-1, 한국노년학회, 28-39.
- 서울특별시(1997),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한국노년학회, 1-14.
- 송혜림·이기영(1990),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가치와 그 평가, 생활과학연구 15, 서울대가정대학, 15-27.
- 이가옥(1994), 노인의 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기영 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조명희 외(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73-190.
- 채옥희(1991),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3-130.
- 최은영(1996),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연구 제51호(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147-163.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 (1997), 한국의 사회지표.
- 한경혜(1996), 농촌 노인 단독가구 노인의 세대 관계, 한국노년학 16-2, 한국노년학회, 39-52.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5), 유럽의 노인복지 -1990년대를 전후한 각국의 동향, 홍익재.
-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노인.
- 한은진·채옥희(1995), 단독가구노인의 가사노동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 pp2-114.